

“부처님 은혜 갚으려면 부처님 뛰어 넘으세요”

강사: 신규탁 교수(연세대학교 철학과)
주제: '벽암록' 제11칙 '황벽 주조한'
일시: 2008년 12월 9일 저녁 7시
장소: 서울 기원정사 법당
주최: 불전강경협회

#禪만 있고 선사가 없구나
 중국 북송 시대에 편찬된 <벽암록>이 전하는 진実は '실제로 마음에 문이 열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당나라 때 활동하던 여러 선사께서 제자들과 주고받은 이야기를 소재로 설주중현 스님이 <설주송고>를 만드셨고, 이 <설주송고>를 원오극근 스님이 선방 수좌들에게 강의했습니다. 이 강의가 나중에 모여 <벽암록>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원오 스님의 제자 대혜종고 스님은 "선어록을 따로 해석해서는 선의 밝은 도리를 깨우칠 수 없다"며 이 책을 불살랐다고 합니다. 문자에 매이지 말고 마음의 문을 열라는 경책이겠지요. 그 뜻을 염두에 두면서 본문으로 들어가 봅시다.

황벽 스님이 대중에게 법문을 하셨습니다. "너희들은 모두 술 찌꺼기나 먹고 진짜 술을 먹는 듯 구는 놈들이다. 이처럼 수행을 한다면 언제 깨닫겠는가? 당나라 온 천지가 선사가 없는 줄 너희들은 아는가?"

황벽 스님이 이렇게 소리치자 어떤 스님이 "여러 총림에서 대중을 지도하고 거느리는 자는 무엇입니까?"라고 반문합니다. 그러자 황벽 스님은 "선이 없다고 말하지 않았다. 선사가 없다고 말했을 뿐이다"라고 답합니다.

황벽 스님이 대중 앞에서 법문을 하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수행하다가 언제 깨닫겠는가 꾸짖고 계

시조. 그러자 의의를 제기하는 자가 있었고, 이에 스님은 제대로 된 선사가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상황이 전하는 바는 무엇일까요? 이 집안의 내력을 보면, 임제 선사의 스승이 바로 황벽 선사이고, 황벽 선사의 스승이 백장 선사이고, 그 위의 스승이 마조 선사이고 남악회양이고 육조혜능입니다.

#스승의 대기대용(大機大用)
 젊은 시절의 황벽 스님에 관한 이야기가 이어집니다. 황벽 스님이 젊은 날 백장 스님 처소를 방문했는데, 백장 스님은 한 눈에 젊은 수자가 참 쓸 만한 인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다음날 황벽 스님이 그곳을 떠나 강서 땅에 백장 스님의 스승인 마조 스님을 뵈었다며 하직 인사를 했습니다. 그러자 백장 스님은 "마조 스님은 돌아가셨네"라고 답합니다. 이 상황에 대해 원오 스님은 "황벽 스님이 백장 스님에게 마조 스님을 뵈었다고 한 말이 과연 열반한 것을 알고 만나 뵈고자 한 것일까? 모르고서 만나 뵈고자 한 것일까?"하고 묻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황벽 스님은 "복이 없고 인연이 적어 꼭 만나 뵈고 가르침을 청하고자 했으나 뵈지 못했다"며 백장 스님이 마조 스님께 하직던 말씀을 전해 달라고 청합니다. 그러자 백장 스님이 두 번 마조 스님을 뵈는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내(백장)가 마조 스님을 뵈자 스님이 불자(拂子, 선종의 장엄구이자 전법의 징표)를 곧추세우셨지. 그리고 물으셨네."

"이것이 불자로서의 작용인가? 불자를 떠난 작용인가?"

잠으로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일까요? 이것은 술지게미가 아닌 진짜 술이겠지요. 이 '참맛'은 불자와 관계가 있을까요? 아니면 불자와 무관하게 보여주려 한 행위일까요? 마조 스님은 선상 모서리에 불자를 걸어 놓으시고는 한참동안 말씀이 없었다고 합니다. 그리고는 갑자기 "백장아. 너는 앞으로 두 입술을 나불거리며 어찌 중생을 구제하려 하는가!"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백장 스님이 불자를 뺏으려 했고 마조 스님이 다시 불자를 곧추세우며 제자 백장 스님에게 "이것이 불자로서의 작용입니까? 불자를 떠난 작용입니까?"라고 되묻습니다. 백장 스님은 그 불자를 선상 모서리에 다시 걸어 놓지요. 그러자 마조 스님은 위엄스럽게 한 차례 소리를 짝 질렀고 그 소리에 백장 스님은 3일 동안 귀가 멍멍하다고 합니다. 백장 스님은 황벽 스님에게 "그대도 이 훗날 마조 스님의 법을 계승하지 않겠는가?" 묻습니다. 그러자 황벽 스님은 "싫습니다. 이제 아 스님의 대기대용(마음의 틀)을 알았습니다. 스승을 그대로 따라했다는 불법 문중에서 참선하고자 한 자들의 대가 끊길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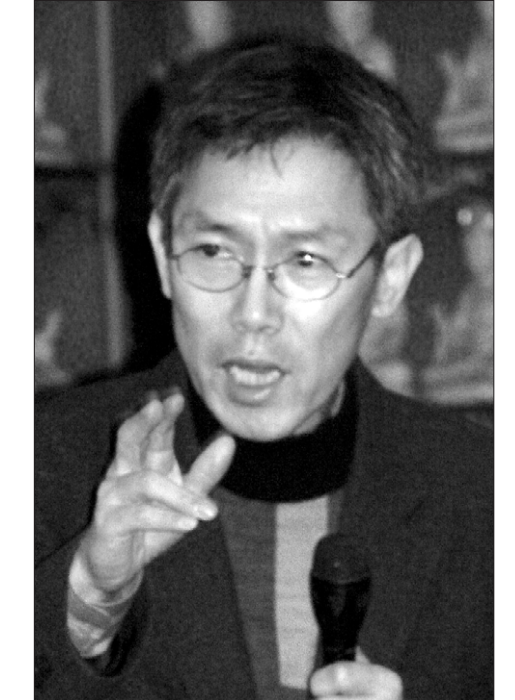
그러자 백장 스님은 "그럼 그렇지, 그럼 그렇지, 스승을 뛰어넘어야만 그것이 스승님에게 은혜 갚는 것"이라고 답합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도 큰스승 부처님께 은혜 갚는 길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부처님보다 더한 사람이 됩시다. 그래야 은혜 갚습니다.

황벽 스님이 하루는 백장 스님에게 "위로부터 전해 내려오는 진리의 등불을 어떻게 보여주실 겁니까?"라고 묻습니다. 그러자 백장 스님은 아무 답이 없었습니다. 황벽 스님은 "앞으로 끊어지지 않도록 하겠습니까?"라고 자답하여 서원을 세웁니다. 이 말없는 대답이 하늘을 뚫고 지축을 흔들었다. 위대한 가르침은 언어가 끝난 그 자리에 있습니다.

인간의 말에는 지시적인 기능이 있습니다. 말에 얽매이지 말고 그 말이 지시하는 내용을 알아차려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말 자체에 얽매이죠. 그 말의 속뜻을 이해해야 할 것입니다.

#직접 체험하라

황벽 스님과 제자 임제 스님과의 만남에도 사연이 있습니다. 임제 스님이 황벽 스님 회화에 있을 때 목주 스님이 수좌로 있었습니다. 목주 스님이 어린 임제 스님에게 "그대는 왜 큰 스님(황벽)께 법을 구하지 않는가?"라고 연유를 묻자, 임제 스님은 "무엇을 물어야 할지 모르겠다"고 답하였습니다. 목주 스님이 시키는 대로 "어떤 것이 불법의 뚜렷한 대의입니까?"를 물다가 황벽 스님에게 풍둥이만 세 차례 맞고 돌아옵니다.



신규탁 교수(연세대학교 철학과).

임제 스님은 인연이 없다 여기고 마지막 하직 인사를 하고자 황벽 스님을 뵈게 되는데, 목주 스님은 미리 황벽 스님에게 살짝 귀띔해 임제가 뛰어난 제자임을 전합니다. 그러자 황벽 스님은 "나도 알고 있다"고 답하지요. 황벽 스님은 임제 스님에게 "다른 곳으로 가지 마라. 바로 고안 여울가에 주석하는 대우(大愚) 스님을 뵈도록 하라"고 일러줍니다.

임제 스님이 대우 스님을 뵈고 풍둥이질만 당한 하소연을 하자 "황벽 스님이 노파심이 간절해 그대에게 사무치게 수고한 것을 어디서 잘못했는지 따지는가"라며 호통칩니다. 그 순간 임제 스님은 홀연히 크게 깨우칩니다. 그리고 "황벽불법무다자(黃壁佛法無多子)"라고 말하지요. 전기를 찾아보면 '황벽의 불법이란 분명하다'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허접하지 않고 단도직입하다는 의미입니다. 그 분명함이란 무엇인가? 이 이야기가 전하고자 하는 바를 선 수행자들이 여러 가지로 평창하기도 하고 선 문헌을 바탕으로 연구하며 여러 가지로 이야기하기도 하지만, 분명한 것은 당사자의 직접적인 체험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당사자의 직접적인 체험, 이 소식을 보여주기 위해 술지게미만 먹고 술을 먹은 줄 착각하는 중생들에게 회초리와 같은 말씀을 하신 겁니다. 진짜 술을 먹고 술맛을 봤다 말해야겠지요. 남이 설명해 놓은 맛을 보고 불법을 맛보았다고 여기는 세간인들을 일깨우는 바가 큼니다.

아들이 아버지에게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하나고 물었을 때, 딸로 설명해 줄 수도 있지만 인생은 네가 직접 살아봐야지 누가 대신 전해줄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말해주는 것과 같습니다. 선사의 스승들께서 불법의 핵심이 무엇인지 제자가 물었을 때 보통 친 것은 네가 직접 삼켜 깨우쳐야 할 네 몫이라는 점을 일깨우기 위함이었던 것입니다. 삶은 우리 당사자의 실존적인 몫입니다. 당사자 본인의 직접 체험을 권하는 것이, <벽암록> 제11칙 '황벽의 술지게미 먹는 놈(黃藥酒糟美)'에서 전하는 핵심입니다.

정리=가연습기자 omiflower@buddhapia.com

“ 문자에 매이지 말고 마음의 문 열어 선도리를 알아 술지게미 먹고 술 먹었다 착각하지 말고 직접 깨쳐라 ”



서울 기원정사 법당에서는 매주 화요일 저녁마다 불자를 대상으로 강경법회가 열린다. <회엄경> <벽암록>을 통해 부처님과 조사스님의 말씀을 삶에서 직접 구현하고자 하는 열의가 뜨겁다.

서울 홍제동에 위치한 기원정사(회주 성파, 02-736-0367)에서 재가불자 수행의 모델이 될 '불전강경법회(不講經法會)'가 매주 화요일 저녁 7시부터 약 70분간 진행된다. <회엄경>과 <벽암록>을 교재로 매주 번갈아 가며 진행되는 도심 속 마음 수련회다. 법당에 자리한 불자들의 뜨거운 열기 속에 법계에 귀의하는 향수해례(香水海禮)를 시작으로 강연이 이어졌다.

강사로 나선 신규탁 교수는 '불전강경법회'의 취지를 이렇게 말한다.

"불교는 이웃 종교에 비해 현대적인 포교가 늦게 마련됐습니다. 조선시대까지만 해도 재가법회는 아예 없었고 개인 불공 위주였지요. 이제부터라도 올바른 재가불자 법회가 열려야 합니다. 그리고 법회에서는 반드시 부처님 말씀과 조사스님의 말씀을 전해줘야 합니다. 그리하여 그 분들의 손에 실제 생활 속에서 불조의 말씀을 실천할 수 있는 안내 지도를 주어드려야 합니다."

<회엄경> <벽암록>을 교재로 선정한 이유에 대해 문자 신 교수는 이렇게 대답한다.

"한국불교 전법의 계보는 태고보우 선사를 중흥조로 하는 선(禪)의 전통에 있으면서, 이와 함께 화엄의 교학으로 선을 돕는 법성종(法性宗)의 맥을 잇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법회에서도 교재를 그렇게 정한 것입니다. 이 책의 내용은 실천하기가 어렵지, 내용은 그다지 어렵지 않습니다. 이 시대의 불자들은 마음을 깨치고 이와 함께 보현행을 해야 합니다."

이날 법회 주제는 <벽암록> 가운데 제11칙 황벽 스님이 이야기 하신 '황벽의 술지게미 먹는 놈(黃藥酒糟美)'이다.

청동불상 조성전문

청동불상·천불·삼천불·만불·개금·탱화·금고·범종



지장 보살님



석가모니 부처님



관음 보살님

장인정신에 입각해 혼을 불어넣은 조성. 대덕스님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할 수 있는 조성. 40여분의 개금불사 전사로 스님들의 목님은 선택 기회 마련. 탁월한 재질, 섬세함, 깨끗한 개금처리의 우수성. 대덕스님들의 많은 성원과 조연 바랍니다.

대표 이상식 합장

- 성화미술원 내 전시관 : (031)591-1022
- 휴대폰 : 011-302-1022
- 경기도 남양주시 호평동 298-15번지

주·야 상담 합니다

청동불 40여분 전시중

인터넷으로도 성화불교전시관의 작품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성화불교전시관 부처님 성호를 보시는 방법
 인터넷에서 검색창에서 [114 서비스] 검색 - 114 서비스 홈페이지에서 [성화불교전시관] 검색 - 사진첩 클릭

무선마이크 무료보시 합니다!

2008년 12월 ~ 2009년 1월 중 앰프, 스피커 설치 사찰에 한함

DX-707 스탠드 마이크
 音響研究家 金文華가 직접 개발해 특허청의 특허 제0176713호를 획득한 국내에 단 하나뿐인 마이크로



- 어떠한 앰프에 연결해도 뛰어난 흡음력, 음질 보장
- 자체에서 소리, 음질 조절

DX-707 스탠드 마이크
 >가격 : 250,000원 (택배비 포함)

목걸이형 특수마이크



TM-108 목걸이 마이크, 각종 행사, 강의용
주문제작(한정수량 60개)
 >가격 : 120,000원 (택배비 포함)

고성능 탁상마이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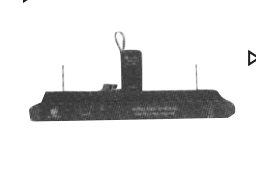
>가격 : 135,000원 (택배비 포함)

법당전용 스피커



Yuko 스피커
 >가격 : 500,000원 (설치비 포함)

高音質 무선마이크



가격
 1인용 보급형 : 220,000원
 1인용 고급형 : 580,000원
 2인용 보급형 : 480,000원
 2인용 고급형 : 680,000원

일반 마이크



V-606LC
 >가격 : 65,000원 (택배비 포함)

◆ 소리공양 종목 ◆

- 사찰, 법당 앰프설치 일절
- 앰프 성능 보완, 클리닉
- 각종 마이크 주문제작, 판매
- 특수 스피커 주문제작, 판매

법당의 마이크 소리가 마음에 안드십니까?
 간단히 해결해 드리겠습니다.